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연속성 문제와 진리의 의미*

곽은성(계명대)

1. 들어가는 말

세 보디가드 이야기(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는 칠십인역에 속한 에스드라스1서(1 Esdras)에 포함된 이야기이다. 에스드라스1서 3장 1절에서 5장 6절에 위치한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역사적 정황(2:15-25) 직후에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문맥적 위치는 본 이야기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단순한 궁중 일화가 아니라 성전 건축의 재개에 있음을 암시한다. 이야기는 다리우스 왕이 페르시아 제국의 관료들을 소집해 연회를 베푼 뒤 잠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된다. 왕을 호위하던 세 젊은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을 주제로 수사 경연 대회(rhetorical contest)를 기획하고, 우승자에게 주어질 왕의 상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차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3S1A5A8076886)

명예를 기대하며 각자의 답안을 왕의 침소에 둔다. 날이 밝자 왕은 공개적인 대화 형식을 빌려 이들의 주장을 경청한다. 첫 번째 및 두 번째 보디가드는 수사 스피치(rhetorical speech)를 통해 와인과 왕의 강력함을 주장한다. 이어, 세 번째 화자인 스룹바벨은 한 차례 발언으로 끝내지 않고, 여자의 힘을 논한 뒤 진리의 강함에 대해 역설한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승한 스룹바벨에게 왕이 소원을 묻자, 그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한 요청을 제시하는 청원을 수행한다. 결과적으로 총 다섯 개의 스피치 가운데 스룹바벨은 세 번째(여자의 힘), 네 번째(진리의 우위), 다섯 번째(성전 재건 청원)에 해당하는 세 개의 스피치를 담당한다. 또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스피치까지는 어떤 대상(술, 왕, 여자, 진리)의 우위를 논증하는 과시적 수사(epideictic speech)의 형태를 띤다.¹ 서사의 정점인 다섯 번째 연설에 이르러 스룹바벨의 연설은 성전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심의적 수사(deliberative speech)로 전환된다. 진리의 우월성을 입증하여 얻은 승리자의 권위를 자신의 이익이 아닌 성전 건축 청원이라는 공적 과업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분석은 세 보디가드 이야기가 독립된 삽화가 아니라,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시키기 위한 설득의 서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

1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부분적 한글 번역 및 수사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곽은성, “설득을 위한 에토스(Ēthos)와 파레시아(Parrhēsia)의 관계”, 『수사학』 43 (2022): 9-34. 아리스토텔레스는 수사학을 세 종류, 심의용(sembouleutikos), 법정(dikanikos), 과시용(epideiktikos)으로 분류한다.

2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위한 편집본은 다음을 사용한다. Robert Hanhart, ed. *Esdrae liber I. Vol. VIII, 1 of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ö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에스드라스1서에 관한 개관 및 연구동향은 다음을 참조하라. 곽은성, “세 보디가드 이야기 최근 연구동향”, 『서양고대사연구』 67 (2023), 79-110. Michael F. Bird, 1 *Esdra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in Codex Vaticanus* (Leiden; Boston: Brill, 2012), 1-34; Alison G. Salvesen, “Deuterocanonical and Apocryphal books”, Alison G. Salvesen and Timothy Michael La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85-402; Dieter Böhler, 1 *Esdras*, (IEKAT, Stuttgart: W.

최근 쿠이(A. Van der Kooij)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헤로도토스의 「역사(Histories Apodexis)」 제3권 80-82의 ‘이상정부논쟁(Constitutional Debate)’과 비교 분석한 이후,³ 세 보디가드 이야기 속에 나오는 스투바벨이 행한 진리에 대한 연설이 단순한 추상적 개념의 찬양이 아니라, 포로기 이후 공동체의 ‘리더십’을 규명하는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⁴ 쿠이는 스피치 내에서 왕이 불의하고 폭압적인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하며(두 번째 스피치), 진리를 이와 대조되는 대제사장직(High Priesthood)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propaganda) 도구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 및 사회적 환원주의는 텍스트가 가진 문학적, 수사적 복합성을 ‘왕권 대 제사장권’이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도로 축소하는 한계를 드러낸다. 또한, 쿠이는 첫 번째 및 세 번째 스피치의 주제인 와인과 여자라는 주제를 단순히 진리의 우월성을 부각하기 위한 배경적 장치나 진부한 소재로 치부함으로써, 이들이 전체 서사 구조 내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 무엇보다 쿠이의 해석이 지닌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스투바벨의 다섯 번째 수사 스피치가 갖는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이다.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단순히 무엇이 가장 강한지를 겨루는 과시적 연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Kohlhammer GmbH, 2015), 13-22. 본 논문에 도움이 되는 에스라에 관한 연구 서설은 다음을 참고하라.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25.3 (2019), 49-73. 최근 칠십인역 추가본에 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2 (2023), 9-40.

- 3 ‘세 보디가드 이야기’와 ‘이상정부논쟁’을 비교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하라. Paul B. Harvey Jr., “Darius’ Court and the Guardsmen’s Debate: Hellenistic Greek Elements in 1 Esdras”, Lisbeth S. Fried(ed.), *Was 1 Esdras First? An Investigation Into the Priority and Nature of 1 Esdras*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79-90. 우리말로 연구된 ‘이상정부논쟁’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윤비, “고대 헬라스 세계에서 민주주의(Demokratia) 개념의 탄생: 헤로도토스 『역사』 제3권의 이상정부논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2014), 42-66.
- 4 Arie van der Kooij, “The Praise of Truth by Zerubbabel and the Issue of 1 Leadership in 1 Esdras”, *BN* (2024), 9-22.

www.kci.go.kr

그 승리의 권위를 바탕으로 성전 건축을 청원하는 심의적 스피치로 나아간다. 쿠이는 진리에 대한 스피치를 단지 대제사장직의 옹호로만 해석함으로써,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목적인 실질적인 역사적 과업인 ‘성전 재건 청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필연적 전제임을 놓친다.⁵

본 논문은 세 보디가드 이야기(1 Esd 3:1-5:6)에서 다섯 스피치가 분절된 단위들의 병치가 아니라, 서로를 전제하고 재구성하는 연속적 설득 과정을 이룬다는 점과, 그 연속성 속에서 ‘진리’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규명한다. 핵심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포도주-왕-여자에 관한 앞선 세 스피치는 각각 다른 주제를 다루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판단을 흐리거나 증속시키는 힘을 드러내며, 스투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는 이를 단순히 네 번째 항목으로 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 논의를 종합·판별하는 규범적 기준으로서 진리를 제시함으로써 강함의 개념 자체를 재정의한다. 둘째, 이 진리는 추상적 가치의 찬양으로 머무르지 않고, 스투바벨의 세 번째(그리고 이어지는 서사)에서 약속의 기억과 이행을 요청하는 수행적 실천으로 구체화되며, 바로 그 지점에서 다섯 스피치의 연속성이 완성된다. 따라서 본고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서 ‘진

5 본고가 서론부에서 쿠이의 논의를 비교적 상세히 소개 및 비판하는 이유는, 그의 최근 해석이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읽는 대표적 방법론 쟁점(스피치들을 ‘그리스적/유대적’ 혹은 ‘왕권/제사장권’의 이분법으로 환원할 것인가, 아니면 다섯 스피치의 연속성과 통합적 설득 구조를 전제로 읽을 것인가)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기 때문이다. 특히 기존 연구들 가운데에는 포도주-왕-여자-진리에 이르는 네 번째 스피치까지를 하나의 논증적 연쇄로 이해하려는 시도는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다섯 번째 스피치(청원)까지를 동일한 수사적 과정의 필연적 귀결로 파악하는 통합적 독해는 사실상 제시되지 못했다. 이는 다섯 번째 스피치가 대체로 ‘승리 후 부수적으로 덧붙는 청원’ 혹은 ‘서사 진행을 위한 행정적 절차’ 정도로 간주되어, 앞선 경연 스피치들과 동일한 수준에서 수사학적으로 분석 및 평가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쿠이는 스투바벨의 ‘진리’ 찬양을 대제사장직의 정당화(정치적 선전)로 규정함으로써, 텍스트의 문학적·수사적 복합성을 대립 구도로 축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그 결과 포도주-왕-여자-진리-청원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논증과 과시적 경연에서 심의적 청원으로의 전환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이러한 비평의 방법론적 근거와 기존 연구사 검토는 2장에서 체계적으로 다루며, 여기서는 문제 제기 와 논증의 출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쿠이의 견해를 우선적으로 조명한다.

리'가 단순한 인식의 범주나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말과 판단 및 행위의 일치를 요청하는 핵심 개념으로 기능함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장에서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구성과 형성에 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스피치를 '그리스적/유대적'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분절해 온 해석의 한계를 지적한다. 3장에서는 첫 세 스피치가 형식적으로는 헬레니즘 수사 전통에 기대고 있으나, 논증의 핵심에서는 히브리 성서 전승에서 전유된 언어·상징·수사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스룹바벨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피치를 중심으로, 이들이 앞선 세 스피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하고 완성하는 지점에 놓여 있음을 밝히며, 진리가 규범적 판단 기준에서 수행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2. 세 보디가드 이야기 구성에 대한 기존 논의와 비평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문학적 구성과 형성 과정을 둘러싼 논의는, 이야기 안에 포함된 다섯 개의 스피치가 서로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는 질문에서 출발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들은 스피치 사이에 나타나는 장르적 차이, 주제의 이동, 그리고 화자의 변화에 주목하며, 이 이야기 전체가 단일한 구성물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기원을 지닌 단위들이 결합한 결과인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자연스럽게 스피치의 구성에 대한 문학적 성장 혹은 편집사를 가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며, 크게 두 가지 대표적인 이론이 제시됐다.

첫째는 토레이(C. C. Torrey)의 주장이다. 토레이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도입부부터 네 번째 스피치(에스드라스1서 3:1-4:42)에 해당하는

www.kci.go.kr

표 1.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구조(에스드라스1서 3:1-5:6)⁶

본문 범위	주제	내용
3:1-3	연회 장면	다리우스 왕의 연회로 이야기가 시작되며, 이후 수사적 경쟁이 벌어질 무대가 마련된다.
3:4-16a	수사 경연 대회 설정	세 보디가드가 '무엇이 가장 강한가'라는 질문을 두고 경쟁하기로 합의하며 이야기의 중심 갈등이 형성된다.
3:16b-23	첫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	와인의 강함을 주장하며, 인간의 이성과 판단을 혼미하게 만드는 힘을 강조한다.
4:1-12	두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	왕의 강함을 주장하며, 파괴와 재건을 가능케 하는 절대적 권력으로서의 왕권을 부각한다.
4:13-32	스룹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	여자의 강함을 주장하며, 여자가 남자가 다스리는 점을 부각한다.
4:33-41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	진리를 가장 강한 것으로 제시하며, 앞선 세 힘을 평가 및 판별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진리를 재정의 한다.
4:42-46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	다리우스의 서원을 상기시키는 청원 연설로, 진리를 수행적 행위(서원 이행)로 연결한다.
4:47-57	다리우스의 칙서	스룹바벨의 요청을 수용하여 예루살렘 재건을 허락하는 왕의 공식 문서가 제시된다.
4:58-63	스룹바벨의 기도와 공동체의 기쁨	공동체적 감사와 찬양을 통해 이야기의 신학적 결말이 형성된다.
5:1-6	귀환 준비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이라는 역사적·서사적 전환이 시작되며 이야기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간다.

6 다섯 스피치의 자세한 수사학적 구성은 다음을 참조하라. 박은성, 윗글 (2023), 83. 본고는 분석의 일관성을 위해 '설득 서사', '규범적 진리', '수행적 진리'라는 핵심 용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 '설득 서사'는 다섯 스피치가 단절된 단위들의 병치가 아니라, 과시적(epideictic) 경연에서 심의적(deliberative) 청원으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연계된 하나의 설득 논리로 조직되어 있음을 가리킨다. '규범적 진리'는 스룹바벨의

본문을 본래 완결된 독립 이야기로 이해하면서, 이 부분에는 유대적 역사나 관심사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요소가 거의 없다고 보았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이 독립적인 이야기는 이후 편집자에 의해 에스드라스1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 안으로 수용되었으며, 다섯 번째 스피치와 더불어 스룹바벨과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는 후대의 추가 요소에 해당한다.⁷ 둘째로 폴만(K. F. Pohlmann)은 첫 세 개의 스피치를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전승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스룹바벨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스피치, 그리고 성전 재건과 관련된 내러티브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견해는 스피치 사이의 주제 및 신학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특히 진리와 성전 재건을 논하는 스룹바벨의 연설을 이야기의 후기 발전 단계로 이해한다.⁸ 토레이가 네 개의 스피치를 하나의 독립된 이야기로 보았다면, 폴만은 세 개의 스피치를 핵심 전승으로 간주하고 스룹바벨의 연설들을 후대의 확장으로 이해한다.⁹

두 번째 스피치(1 Esd 4:33-41)에서 진리가 판단을 정위하는 기준으로 제시되는 국면, 곧 앞선 세 주제(와인, 왕, 여자)가 낳는 왜곡을 가려내는 평가 규범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수행적 진리'는 동일한 진리가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1 Esd 4:42-46) 및 이후 서사(4:47-5:6)에서 서원 상기, 약속 이행, 책임 촉구로 구체화되며 말과 판단 및 행위의 일치를 요구하는 실천적 범주로 확장되는 국면을 가리킨다. 이러한 구분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 장르론(과시적 및 심의적 수사)이 본고의 분석 틀을 이룬다는 점을 전제 하며, 본문에서는 각 장르의 핵심 기능(과시적 수사의 가치 제시 및 평가, 심의적 수사의 선택과 행동 촉구)이 스룹바벨 스피치의 전환과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필요한 범위에서 보완적으로 설명한다.

7 C. C. Torrey, *Ezra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0), 25.

8 Karl-Friedrich Pohlmann, *Studien zum dritten Esra: Ein Beitrag zur Frage nach dem ursprünglichen Schluss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37-52.

9 두 학자의 견해 이외에 세 보디가드 이야기 전체의 편집 가설에 대한 최근 동향을 다음을 참조하라. 곽은성, 윗글 (2023), 92-99. 본고의 통합적 독해는 통시적(편집·성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기계적 통합'이 아니라, 최종 형태의 텍스트가 이질적 요소들을 수사적으로 조직하여 하나의 설득 과정으로 통합한 방식을 분석하려는 공시적 선택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말하는 '저자'는 순수 창작자라기보다 편집자-저자(compiler-author)이며, 다섯 스피치와 서사 부분의 결속을 근거로 본문 전체를 단일 저자(저자-편집자)의

토레이와 폴만의 이론이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세부적인 논지에 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공통된 전제 위에서 있다. 첫 세 개(혹은 네 개)의 스피치는 그리스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반면 스룹바벨의 두 번째와 세 번째(혹은 세 번째만) 스피치는 유대적 신학과 관심을 반영한다는 인식이다. 이러한 전제는 스피치를 그리스적(Greek) 혹은 유대적(Jewish)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문학적 성장 혹은 편집의 주요 근거로 삼는 방식으로 구체화된다. 서론에서 밝힌 것처럼 세 보디가드 이야기와 헤로도토스의 '이상정부논쟁'의 구조적 유사성으로 미루어보아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맥락적 설정과 논쟁 형식이 헬레니즘 그리스 문학 전통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이러한 비교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첫 부분이 그리스 문학적 환경 속에서 이해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초기 연설들을 그리스적으로 분류하려는 기존 논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활용됐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방법론적 문제가 제기된다. 기존 연구는 스피치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그리스적'과 '유대적'이라는 문화적 범주를 도입하지만, 이 범주들은 종종 분석의 도구라기보다 이미 설정된 결론을 정당화하는 전제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이분법적 접근은 스피치 사이의 관계, 특히 스룹바벨의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스피치가 앞선 연설들과 어떤 수사적 및 개념적 연속성을 형성하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만일 처음 세 스피치가 본래 그리스적 맥락에서 형성된 독립 단위이고, 이후의 스피치들이 후대에 덧붙여진 것이라면, 왜 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설득 경쟁 서사로 정교하게 조직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연설들 사이에서 반복되는 어휘 선택과 수사적 패턴이 일관되게 관찰되는지를 해명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기존 연구는 첫 세 스피치

구성물로 읽는 쪽에 무게를 둔다.

내부에 히브리 성서 전승에 기초한 어휘와 상징, 수사 구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시도하지 않았다.

만약 이러한 요소들이 첫 세 스피치 안에서도 확인된다면,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구성 문제는 더 이상 스피치들을 그리스적 혹은 유대적으로 분리하여 설명하는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오히려 이 이야기 전체는 서로 다른 전승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하나의 설득 논리 안에서 유기적으로 조직된 담론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개별 스피치들은 이 통합적 구조 안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분절된 연설들의 집합이 아니라, '강함'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재정의해 가는 통합적 논증 과정으로 읽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스투바벨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스피치에서 제시되는 '진리'의 의미 역시 앞선 연설들과 분리된 독립적 주제가 아니라, 포도주·왕·여자라는 힘의 논의를 종합하고 평가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곧 진리는 개별 스피치의 대안적 항목이 아니라, 전체 서사를 관통하며 이전의 논의를 재구성하는 핵심 개념이며, 그 의미는 오직 통합적 독해 속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 보디가드 이야기의 첫 세 스피치가 공통적으로 히브리 성서 전통의 특징을 전유하고 있음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진리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심화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10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스피치는 4장에서 다룬다.

3. 스피치의 통합적 특징

1) 첫 번째 스피치

첫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는 와인의 강력함을 주제로 한 전형적인 과시적 스피치의 형식을 띤다. 표면적으로 볼 때, 이러한 주제는 그리스 문학에 영향을 받은 연회나 심포지움 담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스피치의 핵심 어휘는 예언서 전통과의 긴밀한 연결성을 드러낸다. 가장 주목할 만한 예는 에스드라스1서 3장 17절의 와인(οἶνος)이 사람의 정신을 혼란케(πλανάω, 플라나오) 하기 때문에 가장 강하다는 논거이다. 이 두 단어의 결합은 고전 그리스 문헌이나 헬레니즘 시대에 사용된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다.¹¹ 이는 칠십인역 이사야 28장 7절에 나타나는 어휘 조합과 상응한다.¹² 이 점은 πλανάω의 의미 범위가 히브리 성서 전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πλανάω는 ‘방황하다’와 ‘미혹하다’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며, 이는 히브리어 פָּטַח(방황하다, 미혹하다)의 의미 영역과 상응한다. 더 나아가 히브리어 הִטָּה(길을 벗어나다, 그릇되다) 역시 칠십인역에서 πλανάω로 번역되는 경우가 확인되며(신 27:18; 잠 28:10), 이 동사는 단순한 이동이나 착오를 넘어 윤리적 및 신학적 일탈을 표현하는 어휘로 기능한다.¹³ 이러한 의미적 대응 관

11 이를 위한 통계는 TLG를 활용한다(<https://stephanus.tlg.uci.edu/>).

12 이사야 28장 7절 -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니(개역개정) / 에스드라스1서 3장 17절 - 여러분! 와인이 가장 위대하지 않습니까? 와인은 그것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13 James K. Aitken, "The Literary and Linguistic Subtlety of the Greek Version of Sirach", Gerhard Karner, Frank Ueberschaer, and Burkard M. Zapff(eds.), *Texts and Contexts of the Book of Sirach/Texte und Kontexte des Sirachbuchs*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7), 137-139.

계는 에스드라스1서 3장 17절의 $\pi\lambda\alpha\nu\acute{\alpha}\omega$ 가 단순한 그리스식 수사 표현이 아니라, 유대적 사고의 세계를 전제한 언어 선택임을 뒷받침한다.

중요한 점은, 히브리 성서와 어휘적 유사성을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히브리 성서에서 술과 방황, 혼미, 판단력 상실을 결부시키는 표현이 지닌 의미와 상징을 의도적으로 전유하여, 이를 와인의 강력함을 입증하는 설득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보디가드는 바로 이러한 성서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와인의 힘을 개인적 쾌락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및 정치적 차원으로 확장한다. 그는 와인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와 관계, 분별 능력까지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통치자와 귀족들 앞에서 와인이 지닌 파괴적 잠재력을 극적으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히브리 성서에서 형성된 와인의 부정적 상징은 전복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그 기능은 변화한다. 즉, 심판의 표지였던 와인은 가장 강력한 힘의 과시적 증거로 전유되어, 수사적 경쟁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설득 도구로 재배치된다.

이러한 수사 전략은 첫 번째 스피치가 단순히 그리스적 연회 담론을 반복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오히려 이 연설은 히브리 성서의 의미 세계를 전제한 청중의 기억을 활성화하고, 그 기억 속에 각인된 상징과 정서를 설득의 논리로 전환함으로써 와인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따라서 첫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는 히브리 성서적 의미와 상징이 그리스 수사 형식 안에서 재기능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다른 스피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두 번째 스피치

두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반의어 동사들의 연속적 사용이다. 에스드라스1서 4장 7-9절에서 두 번째 보디가드는 왕의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죽이다/살리다’, ‘헐다/세우다’,

www.kci.go.kr

‘뽑다/심다’ 등과 같은 상반된 행위들을 연속적으로 배열하며, 이 대조적 구조를 통해 왕이 행사하는 절대적 능력을 강조한다. 이러한 반의어 동사의 연속은 히브리 성서의 수사적 표현과 연관된다. 히브리 성서에서 이러한 반의어 동사의 연쇄는 예레미야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수사 장치다. 예레미야 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예언자에게 ‘뽑고, 헐며, 멸하고, 무너뜨리고, 세우고, 심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이 여섯 개의 동사는 파괴와 회복, 심판과 재건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 안에 포함됨을 선언하는 역할을 한다.¹⁴ 유사한 구조는 예레미야 18장 7-9절, 24장 6절, 31장 28절, 45장 4절 등에서도 반복되며, 반의어 동사의 병치는 하나님의 절대적 통치와 역사 주권을 언어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다음은 에스드라스1서 4장 7-9절과 예레미야에 나타나는 동사의 상응 관계다.¹⁵

- גרה - ἀποκείνω(아포케이노/죽이다)
- שחט - ἐκκόπτω(엑콥토/뽑다)
- סרה - ἐρημόω(에레모/전멸시키다)
- בנה - οἰκοδομέω(오이코도메오/세우다)
- נטע - φυτεύω(퓨투오/심다)

에스드라스1서 4장 7-9절의 동사 배열은 예언서 전통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반의어 수사 구조를 연상시키며, 특히 칠십인역 예레미야 본문과의 어휘적 및 개념적 상응성은 이 표현이 히브리 성서 전통에서 전승된 언어 자원을 의도적으로 활용한 결과임을 시사한다. 예

14 Else K. Holt, “Word of Jeremiah – Word of God: Structures of Authority in the Book of Jeremiah”, J. Goldingay(ed.),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NY: T & T Clark, 2007), 177-8.

15 이와 같은 동사의 관계는 전도서 3장 2-3절에서도 반복된다.

언서에서 이러한 반의어 동사들은 하나님을 주어로 삼아 세계 질서의 파괴와 회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음을 강조하는데, 두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는 바로 이 예언자적 주권 담론의 수사 구조를 왕권 설명에 전유한다. 왕을 ‘죽이고 살리며, 헐고 세우는’ 존재로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귀속되던 행위 범주를 왕에게 적용하고 왕권의 절대성을 부각한다. 이러한 전략은 첫 번째 스피치가 히브리 성서의 ‘혼미’와 ‘방황’의 상징을 통해 와인의 강력함을 설득한 방식과 평행을 이루며, 두 스피치 모두 히브리 성서의 의미 세계를 직접 재현하기보다 그 수사적 자원을 긍정 담론이라는 새로운 맥락 속에서 재기능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세 번째 스피치

세 번째 스피치는 ‘여자’의 강함을 주장하는 스룹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이다. 이 스피치는 히브리 성서 전승에 따른 본문을 정교하게 전유하여 여성의 우월성을 설득하는 수사로 읽을 수 있다. 먼저 에스드라스 1서 4장 20절은 창세기 2장 24절과 어휘 및 주제에서 분명한 대응을 보인다.¹⁶ 남자가 떠나 아내와 함께한다는 핵심 내용은 유지되지만, 스룹바벨의 스피치는 변형을 가한다. 창세기 2장 24절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함께 언급하는 데 비해, 에스드라스 1서 4장 20절은 어머니를 생략하고 아버지(더 나아가 자기를 길러준 아버지)만을 전면에 제시한다. 이 작은 수정은 우연한 축약이라기보다는, 창세기 2장 24절의 내용을 전제한 상태에서 의미 효과를 노린 장치로 이해될 수 있다. 곧 떠남의 대상에서

16 스룹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에 대한 한글 번역은 다음을 참조한다. 곽은성, 윗글 (2022), 15-16. 창세기 2장 24절 - 이렇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에스드라스 1서 4장 20절 - 남자는 자기를 양육한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 아내와 함께합니다.

어머니를 제외함으로써, 남자가 아내를 위해 아버지와 고향까지도 떠나지만, 그럼에도 여성이 남성의 삶에서 차지하는 의존적 기반은 쉽게 해체되지 않는다는 함의를 강화한다.

또한 에스드라스1서 4장 22절은 창세기 3장 16절을 역설적으로 전승한다. 창세기 3장 16절은 남자가 여자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하지만, 에스드라스1서 4장 22절은 여자가 남자의 주인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이 대목은 히브리 전승의 ‘관계 질서’ 언어와 긴장 관계를 이루는 이질적 요소를 드러낸다. 그러나 스룹바벨의 연설은 바로 이 긴장을 생략·반전·재배치하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흡수함으로써, 여성의 강함을 설득하는 논증의 동력으로 전환한다. 이러한 역설은 여성의 강함을 입증하는 핵심 논리로 기능한다. 특히 에스드라스1서 4장 23-27절에서 남자가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친다는 내용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며, 지배의 실제 작동 방식이 남성의 자율적 판단이 아니라 관계적 및 정서적 끌림에 의해 규정될 수 있음을 부각한다.¹⁸ 그리고 스룹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는 잠언 31장 10-31절(특히 16절)의 전승을 배경으로 여성의 역량과 영향력을 논증한다. 잠언에서 여성은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체로 묘사되는데, 에스드라스1서 4장 16절은 이를 반복하기보다 역방향의 전유를 통해 여성을 포도원을 일구는 남성들을 ‘날고 기르는’ 근원적 조건으로 제시한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부정하기보다는, 논증의 초점을 행위 주체에서 존재론적 기반으로 이

17 창세기 3장 16절 - ...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에스드라스1서 4장 22절 - 그러므로 여러분들 모두 여자가 당신들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18 에스드라스1서 4장 23-27절 - 여러분들은 수고하여 이룬 것 모두를 여자에게 가져다주지 않습니까? 남자는 무기를 가지고 여행하며 약탈하고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바다와 강을 항해합니다. 그는 사자와 마주하고, 어둠 속을 걸으며, 도둑질하고 약탈한 것을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가져다 바칩니다. 남자는 그의 부모보다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합니다. 많은 남자들이 여자로 인해 마음이 흔들리고, 여자에게 노예가 됩니다. 여자 때문에 남자들은 죽거나 다치기도 하며 죄를 행합니다.

동시적 여성의 우월성을 강화하는 전략이다.¹⁹

첫 번째 및 두 번째 스피치와 같이, 스투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는 여자의 강함을 단순한 감정적 호소나 경험적 관찰에 근거해 주장하는 연설이 아니다. 오히려 이 스피치는 창세기와 잠언에 형성된 관계 질서와 성별 권력의 언어를 정교하게 전유하고, 그 전승을 생략과 역전이라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재배치함으로써 여성의 우월성을 설득한다.²⁰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첫 세 스피치는 형식상 그리스 문학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수사적 표현과 논증의 핵심에는 공통적으로 히브리 성서 전통에서 형성된 어휘, 상징, 수사 구조가 전유되어 있다. 와인, 왕, 여자의 강함을 논하는 각 연설은 이러한 성서적 언어 자원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재기능화하면서, '강함'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확장하고 변주한다. 이 점에서 세 스피치는 서로 고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설득 경쟁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된 논증의 연쇄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스피치 안에 유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첫 세 스피치와 이후 두 스피치의 관계를 기존 이론처럼 그리스적 혹은 유대적이라는 이분법적 및 문화적 범주로 분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진리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섯 스피치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스투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가 앞선 세 스피치의 연속성을 분석하여 통합적 관점을 견지하고,

19 잠언 31장 16절 - 밭을 살피고 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에스드라스1서 4장 16절 - 사람은 여자로부터 태어나고, 여자들은 포도원을 가꾸는 남자를 양육합니다.

20 첫 세 스피치와 히브리 성서와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증 및 보다 많은 증거는 다음을 참고하라. Un Sung Kwak, "Rhetoric in 1 Esdras 3:1-5:6(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ntegration of Greek and Jewish Features", (PhD diss., University of Oxford, 2022), 122-148.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와 더불어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 나타난 진리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4. 스피치의 연속성 및 진리의 의미

1) 앞선 세 스피치와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의 연속성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서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는 표면적으로는 네 번째 연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선 세 개의 스피치의 주제(포도주, 왕, 여자)에 대해 단순히 하나 더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전 스피치의 논리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종합하는 역할을 한다. 진리는 앞선 세 힘과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는 항목이 아니라, 그 힘들이 야기하는 왜곡과 불의를 폭로하고 해체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진리의 의미는 앞선 세 스피치와의 관계 속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선 세 스피치에서 드러나는 공통된 이슈가 무엇일까? 첫째, 포도주에 대한 스피치는 포도주가 인간의 기억과 이성을 흐리게 하여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취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능력의 붕괴를 의미한다. 포도주는 사람을 일시적으로 강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판단의 혼란이다. 둘째, 왕에 대한 스피치는 왕이 가진 정치적 및 군사적 권력이 사람들을 복종하게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이 강함은 언젠가 전제와 폭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한다. 왕의 권력은 정의로운 판단을 보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의적 결정과 불의한 판결을 낳을 가능성을 지닌다. 셋째, 여자에 대한 스피치는 사랑과 매혹이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힘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힘 역시 편애, 아침, 비합리적 선택을 낳을 수

있으며, 공정한 판단을 방해한다. 이처럼 앞선 세 스피치는 서로 다른 영역을 다루지만, 모두 인간의 판단(κρίσις, 크리시스/판단)을 흐리거나 종속시키는 힘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왜곡이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행위의 방향과 사회적 질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데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스룹바벨은 ‘강함’의 기준 자체를 재정의하며, 진리를 판단의 윤리적 기준으로 제시한다.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에서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불의한 판단을 배제하는 규범적 실재로 묘사된다. 특히 δίκαιος(디카이오스/정의)와 ἄδικος(아디코스/불의)의 반의어를 통해 진리의 강함을 강조한다. 에스드라스1서 4장 39-40절은 진리는 편파를 취하지 않고, 차별과 뇌물을 배제하며, 그 판단 안에 어떠한 불의도 없다고 선언한다. 여기에 나타나는 표현은 레위기 19장 15절과 35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17절에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 또한 히브리 성서 전승에 입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예언서 전승은 진리와 공의 및 재판을 결속시킨다(슥 7:9; 8:16). 따라서 4:39-40에서 진리가 “불의 없는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의와 진리의 결합이 낫설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히브리 성서 전승이 갖는 규범 언어를 수사적으로 재배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스룹바벨은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의 속성과 결속시킨다. 레위기 19장과 신명기 10장에서 불의 없는 판단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제시되듯이, 진리는 단순히 올바른 판단의 기준일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해된다. 이는 왕의 판단조차도 진리의 규범 아래 놓여야 함을 암시하며, 진리가 앞선 세 스피치에서 제시된 모든 ‘강함’을 평가하는 최종 기준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진리는 인간이 소유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

간의 판단과 삶을 규정하는 규범적 실재로 제시된다.²¹ 이제 질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간다. 만일 진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결속된 규범적 기준이라면, 이 진리는 단지 판단의 원리로만 머무는가, 아니면 구체적인 삶의 태도와 실천으로 드러나는가?

2)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에 나타난 진리의 속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에서 진리는 추상적 개념이나 인식의 범주에 머물지 않는다. 에스드라스1서 4장 39절에서 진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의로운 것을 행하는 주체로 묘사된다(τὰ δίκαια ποιεῖ: 타 디카이아 포이에이/그것(진리)은 정의를 행하며), 이 표현은 진리를 행위로 드러나는 실재, 곧 수행적 범주로 위치시키며, 실제로 정의로운 행위를 산출하는 능동적 주체로 제시된다.²²

그러면 어떤 것을 수행하는 것인가? 스룹바벨의 스피치에서 어떤 행위를 볼 수 있는가? 스룹바벨은 자신의 첫 번째 스피치에서 여성의 강함을 강조하며, 포도주와 왕권을 능가하는 힘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두 번째 스피치에서 스룹바벨은 이러한 자신의 의견을 부정한다. 그는 더 이상 ‘무엇이 더 강한가’를 주장하지 않고, 앞선 모든 스피치 — 자기 자신의 연설을 포함하여 — 가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힘들을 다룬다. 이 전환은 스룹바벨이 자신의 이전 발화를 절대화하지 않고, 그것이 진

21 스룹바벨은 자신의 두 번째 스피치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한다. 에스드라스1서 4장 40절 - 모든 시대의 강함, 권력, 권위와 위엄이 진리에 속해 있습니다. 진리의 신(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 얼핏 보기에 ‘진리’가 ‘정의’를 행한다는 서술은 히브리 사교 구조에서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표현은 ‘진리’라는 명사가 곧장 행위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개념의 급작스러운 도입이라기보다, 진리가 의인화되어 행동하는 주체로 제시되는 수사 관습 위에서 이해될 수 있다. 무엇보다 본문의 관심은 ‘진리’ 개념의 기원사가 아니라, 진리가 단지 심판의 기준으로 선언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행위를 산출하는 능동적 실재로 제시된다는 점, 곧 진리가 수행적 범주로 확장된다는 데 있다.

리의 최종 형태가 아님을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 고백의 태도는 진리를 말하는 에토스라 볼 수 있는 파레시아의 핵심적 수행을 보여준다.²³ 스룹바벨은 자신의 수사적 성공이나 논증의 설득력을 지키는 데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이긴 논쟁의 틀 자체를 넘어서야 함을 인정함으로써 진리에 대한 충실성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논리적 발전이 아니라, 말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을 진리의 기준 아래 두는 윤리적 행위다. 곧, 스룹바벨은 진리를 말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말과 판단 역시 진리에 의해 판단받아야 함을 받아들이는 위치로 이동한다.

이 점은 스룹바벨이 경연의 승자가 된 이후 다리우스 왕에게 요청하는 내용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승자의 특권으로 개인적 보상이나 정치적 유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 그는 왕에게, 왕이 즉위할 때 스스로 약속했던 성전 재건의 맹세를 기억하고 실천할 것을 요청한다. 이 요청은 단순한 청원이 아니라, 왕이 자신의 말과 약속에 책임지는 주체가 되도록 돕는 행위로 기능한다. 다시 말해, 스룹바벨의 파레시아는 자신뿐 아니라 타자가 진리에 충실한 주체가 되도록 이끄는 실천으로 확장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는, 진리를 주장함으로써 권위나 우위를 확보하려는 수사적 전략으로 이해되기보다, 자신의 첫 번째 발화가 지닌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재조정하는 과정으로 읽혀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룹바벨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스피치는 단절된 두 발언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연속성 속에서 진리는 고정된 명제로 제시되기보다 말

23 파레시아의 의미와 스룹바벨의 파레시아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하라. 곽은성, *윳글* (2022), 14, 18-21.

과 행위의 조정 과정을 통해 실현된다. 이야기의 저자는 이를 통해, 진리가 수사적 성공의 결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비판과 자기 제한을 감수하는 수행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진리를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실천되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독자를 이끈다.

3)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와 진리의 완성: 약속의 이행으로서의 수행적 진리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는 앞선 두 번째 스피치에서 제시된 진리 개념을 결정적으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세 번째 스피치는 진리가 어떻게 구체적 행위와 역사적 결단으로 실현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진리는 더 이상 판단의 원리나 발화의 태도에 머무르지 않고, 약속의 이행이라는 실천적 요구로 전환된다.²⁴

이 스피치의 핵심은 다리우스 왕의 서원을 가리키는 언어적 선택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에스드라스1서 4장 43절과 46절에서 사용된 *εὐχομαι-εὐχή*(유코마이/약속하다; 유케/약속) 동족 목적어 구조는 고전 및 헬레니즘 그리스어에서는 일반적이지 않은 표현이지만, 칠십인역 그리스어에서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적인 용례이다. 이 구조는

24 에스드라스1서 4장 42-46절 - 42. 그러자 왕이 그에게 말하였다. “기록된 것보다 더 큰 것이라 할지라도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우리는 그것을 네게 주겠다. 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너는 내 곁에 앉게 될 것이며, 내 친족이라 불릴 것이다.” 43. 그러자 그가 왕에게 말하였다. “왕께서 왕권을 받으시던 날에 예루살렘을 건축하겠다고 서원하신 그 서원을 기억하소서, 44. 곧 이두메아 사람들이 불태웠던 그 성전 말입니다. 유다가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 황폐해졌을 때에 말입니다. 45. 또한 왕께서 친히 서원하시기를, 키루스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고 서원하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서 가져간 모든 기물들을 구별하여 보내겠다고 서원하였을 때에, 그 기물들을 되돌려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46. 그러므로 이제, 오 주 왕이시여, 이것이 제가 왕께 구하는 바이며, 이것이 제가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곧 왕의 위엄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간청하오니, 왕의 입에서 나온 그 서원, 곧 하늘의 왕께 서원하신 그 서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어 본문에서 서원을 표현할 때 흔히 사용되는 נָדָר/נָדָרָה/נָדָרָה(나다르/서원하다; 네데르/서원)의 직역적 반영으로 이해될 수 있다(민 30:3[MT 30:2]).²⁵ 히브리어 본문에서 서원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이고 조건적인 약속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일단 서원이 발화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발화자를 구속하는 의무로 전환된다.²⁶ 이 점에서 서원은 단순한 종교적 감정 표현이 아니라, 말과 행위의 일치를 요구하는 윤리적 및 법적 행위로 기능한다. 스투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는 바로 이 전통을 다리우스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적용함으로써, 왕 자신의 발화를 진리의 규범 아래 놓는다.

주목할 점은, 스투바벨이 다리우스의 서원을 재진술하는 방식이다. 스투바벨은 서원의 정확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지만, “왕이 왕권을 받던 날에 서원한 것”(1 Esd 4:43)을 상기시키며, 그 조건이 이미 충족되었음을 암시한다. 이는 서원의 조건절(protasis)이 성취되었음을 전제한 상태에서, 이제 남은 것은 이행(apodosis)뿐이라는 논리를 구성한다. 다시 말해, 스투바벨의 요청은 새로운 명령이나 외부적 압박이 아니라, 왕 자신의 말이 스스로를 구속하도록 만드는 언어적 장치로 작동한다. 이 지점에서 εὐχομαι-εὐχή의 반복은 단순한 어휘 선택을 넘어, 진리의 수행성을 구현하는 핵심 장치가 된다. 진리는 여기서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기억되어야 하고(43절), 행해져야 하며(46절), 그 결과가 역사 속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현실적 요구로 제시된다. 다리우스가 스투바벨의 요청을 즉각 수용하고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 서술(에스드라스1서

25 스투바벨의 두 번째 및 세 번째 스피치와 히브리 성서 본문과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 및 보다 많은 증거는 다음을 참고하라. Un Sung Kwak, *윗글*, 149-161.

26 서원에 대한 개념은 다음을 참조하라. Tony W. Cartledge,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JSOT Press, 1992), 73-139; Jacobus A. Naudé, “Vow Formulae: Biblical Hebrew”, Geoffrey Khan (ed.),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Leiden: Brill, 2013), 976-979.

4:47-57)은, 진리가 설득의 차원을 넘어 실제로 수행되는, 변화를 산출하는 힘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 전체에서 진리 개념을 완성하는 결정적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스피치가 인간을 지배하는 힘들의 상대성과 왜곡 가능성을 드러냈고, 두 번째 스피치가 진리를 판단의 규범이자 신적 속성으로 제시했다면, 세 번째 스피치는 그 진리가 말해진 약속의 이행이라는 구체적 실천 속에서만 완결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로써 세 보디가드 이야기는 진리를 단순히 '가장 강한 것'으로 선언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말-행위가 일치되는 삶의 방식으로 제시하는 서사로 완성된다.

5.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에스드라스1서 3장 1절부터 5장 6절에 이르는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서로 다른 전승의 기계적 결합이 아닌,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설득 서사(persuasive narrative)로 규정하고, 그 안에서 진리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고 완성되는지를 고찰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해당 본문을 그리스적 혹은 유대적이라는 이분법적 범주로 분리하거나, 진리에 대한 스피치를 단순한 정치적 선전으로 환원했던 것과 달리, 본 논문은 다섯 개의 스피치가 '성전 재건'이라는 구체적 역사적 과업을 향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통합적 구조임을 입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첫 세 스피치(와인, 왕, 여자)는 비록 헬레니즘 수사 경연의 외형을 띠고 있으나, 그 논증의 심층에는 히브리 성서 전통의 언어와 상징이 깊이 전유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대상을 '가장 강한 것'으로 내세우지만, 공통적으로 인간의 이성을 혼미

하게 하고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힘의 양면성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 위에서 제기된 스룹바벨의 두 번째 스피치는 진리를 단순히 힘의 우위를 겨루는 또 하나의 경쟁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권력과 욕망이 이야기하는 불의와 왜곡을 바로잡는 규범적 기준으로 재정의한다. 더 나아가 본문에서 진리는 단지 인간이 합의한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결속된 규범적 실재로 제시되며, 따라서 그 진리는 말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야 할 요청을 내포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스룹바벨이 진리를 대하는 태도, 즉 그의 패러시아다. 그는 진리의 강함을 역설하기 위해, 직전 스피치에서 자신이 승기를 잡았던 여자의 강함이라는 논리마저 스스로 상대화한다. 이는 스룹바벨이 진리를 자신의 수사적 승리를 위한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과 자신의 발화마저 진리의 기준 아래 굴복시키는 자기 부정의 윤리를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진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수행적 실재로 완성된다. 스룹바벨의 세 번째 스피치는 다리우스 왕의 서원을 상기시키는 청원 연설로 전환되는데, 이는 진리가 입 밖으로 나온 말이 구체적인 행위로 이행될 때 비로소 성립됨을 역설한다. 여기서 진리는 단순한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약속과 성취의 일치를 요구하는 구속력을 갖는다. 왕의 즉각적인 칙서 반포와 성전 재건 승인은, 진리가 수사적 설득을 넘어 역사적 변혁을 산출하는 실질적인 힘임을 서사적으로 증명한다.

결론적으로,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서 진리는 단순한 인간적 규범이나 추상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결속된 신학적 실재로 제시된다. 진리는 정의로운 판단의 기준일 뿐 아니라, 말해진 약속이 책임 있게 이행될 것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반영한다. 이 본문은 왕이든 지도자든 자신의 말과 행위가 진리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권위가

무력해짐을 드러내며, 진리를 소유하는 권위가 아니라 진리를 수행하는 삶 속에서만 참된 통치와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함을 서사적으로 제시한다.²⁷

참고문헌

- 곽은성, “설득을 위한 에토스(Ethos)와 파레시아(Parrhêsia)의 관계 - 에스드라서의 ‘세 보디가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학』 43 (2022), 9-34.
- 곽은성, “세 보디가드 이야기 최근 연구동향”, 『서양고대사연구』 67 (2023), 79-110.
- 김선중, “에스라-느헤미야 연구 서설”, 『구약논단』 25.3 (2019), 49-73.
- 김정훈, “시편 151편의 11Q5와 칠십인역 본문 자료에 관한 연구”, 『구약논단』 29.2 (2023), 9-40.
- 윤비, “고대 헬라스 세계에서 민주주의(Demokratia) 개념의 탄생 -헤로도토스 『역사』 제3권의 이상정부논쟁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2.2 (2014), 42-66.
- Aitken, James K., “The Literary and Linguistic Subtlety of the Greek Version of Sirach”, Gerhard Karner, Frank Ueberschaer, and Burkard M. Zapff(eds.), *Texts and Contexts of the Book of Sirach/Texte und Kontexte des Sirachbuches*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7), 115-140.
- Bird, Michael F., 1 *Esdras: Introduction and Commentary on the Greek Text in Codex*

27 쿠키는 스피치 내에서 왕이 불의하고 폭압적인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스톱 바벨의 진리 담론을 왕권에 대항하는 대제사장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역사적 맥락에서 볼 때,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서 제시되는 진리의 비판 대상은 왕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본문에 사용된 스피치의 주제들과 그 안에 내포된 암시는, 기원전 2세기 유대 사회가 경험했던 다양한 형태의 왜곡된 리더십과 사회적 위기를 포괄적으로 반영한다. 예컨대 첫 번째 스피치의 와인 주제는 공동체를 미혹하고 판단을 흐리게 한 부패한 제사장직 지도자들(예: 마카비2서 4:7-22의 야손, 마카비1서 7:8-25의 알기무스)을 연상시키며, 두 번째 보디가드의 스피치는 유대인을 향한 안티오쿠스 4세의 폭압적 통치를 환기한다(마카비1서 1:29-64). 또한 스톱바벨의 첫 번째 스피치에서 다루어지는 여자의 주제는 혼인 규범과 공동체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적 긴장을 반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에 나타난 진리는 특정 제도나 직분을 옹호하기 위한 선전 도구라기보다, 왕권, 제사장직 및 사회적 관계 전반에 걸쳐 드러난 거저되고 실패한 리더십을 비판하고, 말과 판단, 행위의 일치를 요구하는 규범적 기준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 Vaticanus (Leiden; Boston: Brill, 2012).
- Böhler, Dieter, 1 *Esdras* (IEKAT, Stuttgart: W. Kohlhammer GmbH, 2015).
- Cartledge, Tony W., *Vows in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sheffield: JSOT Press, 1992).
- Hanhart, Robert, ed., *Esdrae liber I. Vol. VIII, 1 of Septuaginta. Vetus Testamentum Graecum Auctoritate Academiae Scientiarum Gottingensis editum*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4).
- Harvey Jr. Paul B., “Darius’ Court and the Guardsmen’s Debate: Hellenistic Greek Elements in 1 Esdras”, Lisbeth S. Fried(ed.), *Was 1 Esdras First? An Investigation Into the Priority and Nature of 1 Esdras* (Atlanta, GA: 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 2011), 179–90.
- Holt, Else K., “Word of Jeremiah—Word of God: Structures of Authority in the Book of Jeremiah”, J. Goldingay(ed.), *Uprooting and Planting: Essays on Jeremiah for Leslie Allen* (New York, NY: T & T Clark, 2007), 172–189.
- Kwak, Un Sung, “Rhetoric in 1 Esdras 3:1–5:6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ntegration of Greek and Jewish Features”, (PhD diss., University of Oxford, 2022).
- Naudé, Jacobus A., “Vow Formulae: Biblical Hebrew”, Geoffrey Khan(ed.), *Encyclopedia of Hebrew language and linguistics* (Leiden: Brill, 2013), 976–979.
- Pohlmann, Karl-Friedrich, *Studien zum dritten Esra: Ein Beitrag zur Frage nach dem ursprünglichen Schluß des chronistischen Geschichtswerkes*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70).
- Salvesen, Alison G., “Deuterocanonical and Apocryphal books”, Alison G. Salvesen and Timothy Michael Law(eds.), *The Oxford Handbook of the Septuagin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385–402.
- Torrey, C. C., *Ezra Stud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10).
- van der Kooij, Arie, “The Praise of Truth by Zerubbabel and the Issue of 1 Leadership in 1 Esdras”, *BN* (2024), 9–22.

검색어

칠십인역, 에스드라스1서, 세 보디가드 이야기, 진리, 수행적 진리, 수사학

www.kci.go.kr

[ABSTRACT]

The Continuity of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and the Meaning of Truth*

Un-Sung Kwak
Keimyu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erformative and practical meaning of “truth” in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1 Esdras 3:1-5:6) through an integrated rhetorical analysis. While traditional scholarship has often fragmented the text into “Greek” and “Jewish” layers or reduced the praise of truth to mere political propaganda, this article seeks to demonstrate how the concept of truth functions as the core persuasive driver for the historical resumption of the Jerusalem Temple reconstruction.

To achieve this, the study adopts a holistic rhetorical strategy, reading the five speeches not as isolated fragments but as a coherent persuasive sequence. It traces the transition from epideictic contest to deliberative petition and employs an intertextual method to uncover how Hellenistic rhetorical forms consistently appropriate Hebrew scriptural language (from Isaiah, Jeremiah, Genesis, and Proverbs) as persuasive resources.

The research first critiques existing editorial hypotheses b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23S1A5A8076886)

highlighting the narrative's rhetorical continuity. It demonstrates that the first three speeches — on wine, the king, and women — utilize scriptural motifs to expose the inherent distortions in human judgment. Based on this, the study redefines Zerubbabel's speech on truth not as another competing force, but as the normative criterion aligned with divine justice. The analysis culminates in Zerubbabel's final appeal, where truth is transformed into a performative demand for the king to fulfill his prior vow, thereby linking speech and judgment to concrete historical ac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is a sophisticated performative discourse rather than a mere court tale. By redefining truth as the alignment of speech, judgment, and action, this research enhances the theological and ethical understanding of Septuagint literature. Ultimately, it offers a critical insight into political ethics, suggesting that the legitimacy of authority is fundamentally measured by its commitment to fulfilling spoken promises — a “performance” of truth that initiates communal restoration.

key words

Septuagint, 1 Esdras, The Story of the Three Bodyguards, Truth, Performative Truth, Rhetoric

투고일 : 2026년 2월 01일

심사일 : 2026년 2월 13일

게재 확정일 : 2026년 2월 19일

www.kci.go.kr